

내년 제주 지역경제 건설에 달렸다

정부, 어제 서울청사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2.5% ↑·내년 1.6% 상승
제주 내년 성장률 전국대비 높지만 올해보단 낮아
“민간소비 긍정적... 건설경기 부진이 성장에 걸림돌”

2023년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국내 금리 상승과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을 경제 둔화 요인으로 분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잡았다.

이에 반해 올해와 내년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는 다른지역에 비해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제주경제는 골프장, 렌터카 등의 큰 폭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2.5%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23년도

성장률도 전국평균 1.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내 금리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등이 내년도 제주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건설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보였다. 이는 2010년 8월 이후 12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10월 기준 제주지역 건축착공면적 및 건축허가 면적은 비주거용 중심으로 각각 전년월대비 18.2%, 33.0% 감소했다.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지난 2016년 민간공사부문 계약액이 796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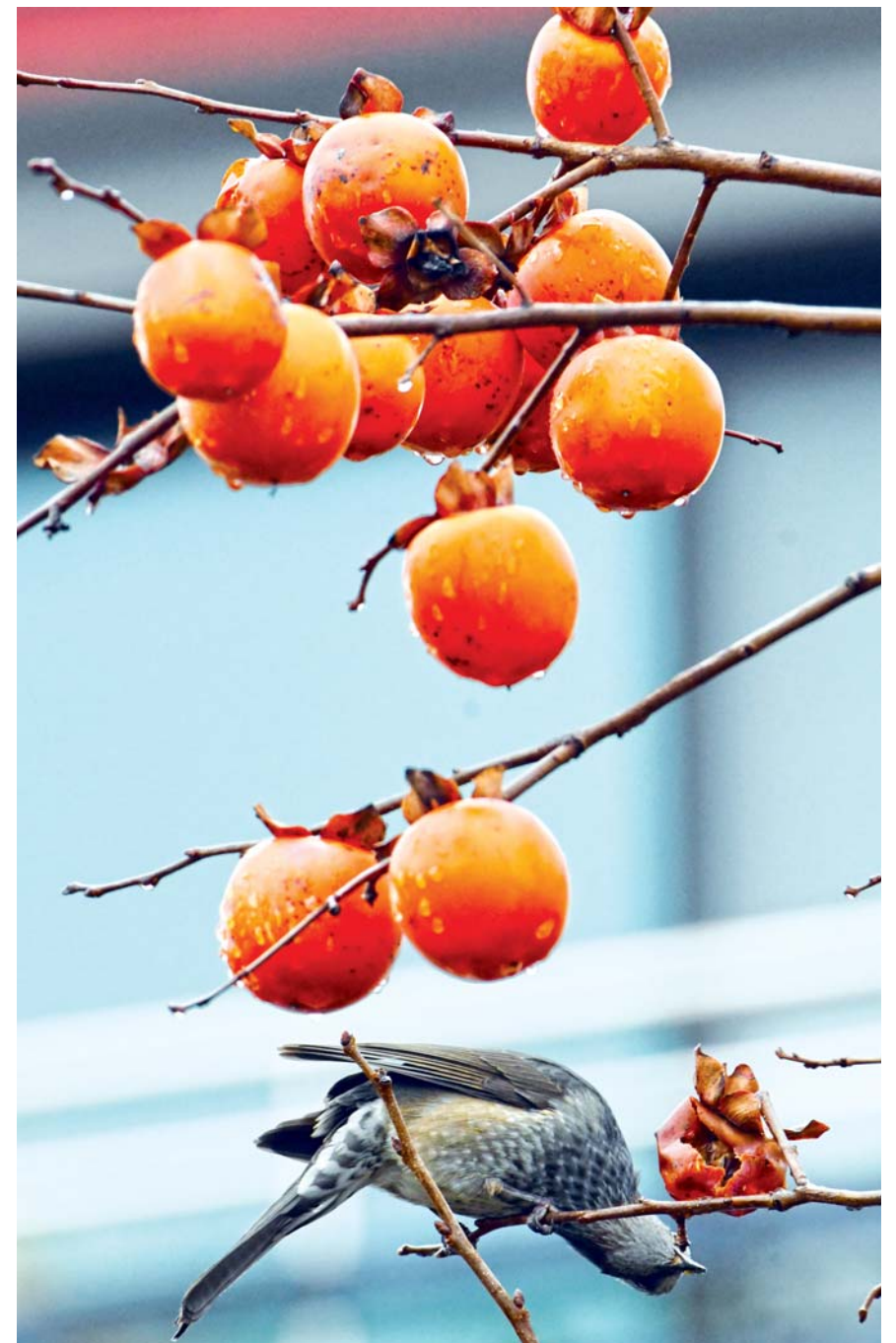
억원, 2022년 10월 현재 1325억원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분야 착공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멘트 가격은 전년대비 46.5%, 철근 가격은 72.5% 인상됐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비용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착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예산이 있어 그나마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민간부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한 경제전문가는 “수출감소와 소비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민간소비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국 경제성장률보다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비오는 날 만한 즐기는 직박구리 겨울비가 내린 21일 제주시 오동동 한 가정집 감나무에 직박구리가 찾아와 홍시를 먹으며 만찬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1100도로 설경버스 임시운행

24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설경을 만끽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등산객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토·공휴일에 한해 임시버스를 운행한다.

한라산 설경버스는 일반간선 240번 정규노선에 이달 24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차량 2대를 임시 투입해 제주터미널에서 영실매표소까지 왕복 운행한다.

이번 임시서비스 도입으로 240번은

토·공휴일에 기존 4대에서 6대로 증차하며, 운행횟수는 편도 9회에서 15회로 늘어난다.

기존 노선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정상 운행하며, 이번에 투입되는 임시서비스는 제주버스터미널~한라병원~어리목~영실매표소까지만 운행할 계획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겨울철 설경버스, 단풍철 단풍버스, 출퇴근버스 등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1100도로의 경우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 등 기상변화가 많은 지역인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제주섬 또 강풍 동반 폭설 내릴 듯

산지 최대 50cm 눈... 해안지역도 5~15cm 예상

제주에 또다시 강풍과 함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영향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해발 600m 이상 산지에는 20~30cm의 눈이 내리고 많은 곳은 최대 50cm 이상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또 해발 200~600m 중산간은 10~25cm, 남·동부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에 5~15cm의 눈이 각각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22일부터 바람이 조속 10~16m,

순간풍속 조속 20m (산지 조속 25m 이상)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온도 푹 떨어져 22~24일에는 평년보다 2~7℃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중산간 이상 도로로는 22일 낮부터 25일 오전 사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해안 지역에서도 도로나 통행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과 보행자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611
잠정집계 21일 누적 35만9961
<17시 기준>

예담채
십리향
10kg

상상예찬에 이은
또 하나의 최고의 쌀!

예담채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십리향

예담채 십리향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신제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맛'과 '최고의 향'을 자랑합니다.

구입문의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064-746-7216)